

사람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자성!

# 할 말은 한다 2호

2018년 4월 4일 수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옥 전화/920-5159

## 2018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 11대 임원선거 투표율 73.9% 찬성률 96.2% 노재옥 · 정혜란 당선



왼) 서울지역본부 최희선 본부장 오) 노재옥 정혜란 선거운동본부

### 고대의료원지부의 3년을 이끌어갈 산별 11대 임원선거가 진행됐다.

2018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 11대 임원선거에는 노재옥, 정혜란 후보자가 단독 출마했다. 약 7일간의 선거유세 후 3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 선거에서 투표율 73.9%, 찬성률 96.2%의 득표율을 얻으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에 당선됐다.

다음은 산별 11대 집행부 당선인들의 소감이다.

노재옥 지부장 당선인

조합원님들의 강렬한 지지에 감사드리며, 어깨의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화된 시대에 발 맞춰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병원 내 공짜 노동을 없애고 노동이 존중받고 미래가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혜란 수석부지부장 당선인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월 24 이·취임식을 시작으로

조합원들과의 많은 만남 통해 늦은 출범의 공백 메울 것.

11대 임원 선거는 약 3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치러졌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왔기에 기존 집행했어야 할 시산제, 스키캠프등의 대중 사업들과 노사 간 이뤄져야 할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이 전부 정지 된 상태였다.

한편, 오는 4월 24일(화) 오후 6시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고대의료원지부 산별 10대 11대 집행부 이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별 11대 노재옥·정혜란 집행부가 정식 출범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이취임식을 시작으로 11대 집행부의 얼굴을 알리는 한편, 빠르게 지부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을 만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사 간 회의를 통해 공백기간 동안 산적되어 있는 지부의 현안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후 6시 안암 의과대학 유광사홀

# '아픈 현대사' 4.3사건 70년 文 대통령 '완전한 해결' 약속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만세운동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시민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을 계기로 4·3 사건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1년간 2,500여 명이 구금되고, 테러와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은 국가의 탄압에 맞서 저항했으나 군부독재 정권은 제주도의 95% 마을을 불태웠으며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빨갱이라는 오명을 씌워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죽여 사망자가 3만 여명에 이를 정도로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면입니다.

국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3일(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으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 한다"며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지부도 민중 항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제주 4.3항쟁 순례에 함께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주최한 순례는 4.3 평화공원 답사를 시작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령제단과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가 없는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방불명인 표석이 안치된 곳등으로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제주 4.3 평화 기념관에서는 4.3사건 70주년 준비위원장님께서 직접 사건에 대한 해설을 맡아주셨으며 이를 통해 육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제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4.3 70주년  
동백꽃은 '달아놓으세요.'



동백꽃은 4.3 '영혼들이 쫓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스러져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4.3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꽃입니다.  
추념기간 : 2018.3.21. ~ 2018.4.10.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국회토론회**

4월6일 (금) | 오전 10시~오후12시30분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이대로는  
안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은 인증 기간에만 인력을 늘리고 환자수를 줄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인력충원이 없다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전면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병원 현장에 적정한 인증 기준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의 인력 및 실정에 맞는 인증 제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

4월 5일에는 “눈속임 인증, 적정 인력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되지 않은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중단하라”는 기조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지부도 참가할 예정이다.